

現代韓國方言의 母音體系에 대하여

李 秉 根

(서울대학교)

1.0 초창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韓國方言學은 새로운 理論的 模索과 方言特徵들의 발견에 초점을 두면서 발돋움하고 있다. 傳統的인 方言研究로부터 構造方言學의 方言研究에로 최근에서야 관심을 돌리면서¹ 새로운 方言特徵들을 발견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生成音韻論의 方言學的 適用은 이루어진 바 없는 듯하며,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극히 부분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현실은 韓國方言學의 초창기적 수준 즉 전국에 걸친 종합적인 Fieldwork 도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과 理論的 定立도 아직 먼 상태에 있다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筆者 자신도 10년 가까이 韓國方言學에 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한 현실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本攷에서는 現代韓國方言의 母音體系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그에 밀접히 관련되는 몇가지 音韻現象을 기술함으로써 母音體系의 설정에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1.1 최근 수년간 筆者는 母音體系에 관련되는 方言特徵들을 기술한 몇 편의 論文들을 발표하였다. 이 拙稿들 속에서 특히 흥미를 느꼈던 문제는 母音體系를 형성함에 있어서의 圓脣性의 역할이었다. 바로 이 圓脣性에 의한 對立的 關係를 구명하는 일이 韓國語의 母音에 관한 研究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닐가 여겨진다.

그런데 S.E. Martin 교수는 母音體系를 이루는 音韻論的 成分으로 高舌位置(I), 中舌位置(E), 低舌位置(A) 前舌位置(Y), 및 圓脣化(W)의 다섯가지 成分을 들고 있다². 이 成分分析의 방법은 機能構造的인 것이었다. 최근에 金鎮宇교수는 韓國語의 母音體系에 대하여 生成音韻論에 입각하여 基本母音으로 i o a o의 4개를 설정하였다.³ 두 교수의 기술에는

¹ 金芳漢(1968), 構造方言學. 語學研究 4-1.

李秉根(1969a), 黃澗地域語의 音韻. 서울大 教養部 論文集 1

李秉根(1969b), 方言境界에 대하여. 韓國文化人類學 2

² S.E. Martin (1951), Korean Phonemics. *Language* 27-4

high tongue position I front tongue position Y

mid tongue position E (ɛ) liprounding W

low tongue position A

³ Kim Chin-Wu (1968), The Vowel System of Korean. *Language* 44-3

상당한 理論의 相違가 있으나, 이 두 기술에서 볼 때 圓脣化의 成分인 W와 基本母音으로서의 o에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韓國語의 母音體系를 설정함에 있어서 圓脣性이란 示差의 資質이 선결되어야 함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本攷에서의 筆者의 욕심은 圓脣性에 關여하는 統合的 音韻現象의 기술을 통하여 圓脣的 對立關係를 확인하고 나아가서 音韻論의 方法論을 특히 方言研究의 觀點에서 새로이 음미하여 보는 일이 된다.

이러한 意圖에 따라 本攷에서 이제부터 언급하게 될 統合的 音韻現象은 i) i 逆行同化 (또는 올라우트 현상), ii) 圓脣母音化와 非圓脣母音化, 끝으로 iii) 東海岸 中部地域의 方言에서 발견된 특수한 形態音韻論的 類形 등이다. 이들 方言特徵들은 通時的으로는 近代韓國語로부터 비롯되어 기술될 수 있는 성질의 현상이며, 共時的으로는 方言區劃을 결정짓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方言特徵으로 보이는데, 이로부터 유도되는 문제는 다시금 母音體系의 變遷에 중요한 音韻論的 對立關係의 해명이 될 듯하다.

2.1 i 逆行同化 또는 올라우트라고 불리워온 統合的 音韻現象은 그 擴大化(leveling)上的 方言差를 가지면서 전국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⁴. 올라우트란 前部化(vowel fronting)의 成分의 影響으로 後部母音이 前部母音으로 바뀌어지는 逆行同化現象으로서, 音韻論的 單純化(smplification)가 되는 palatal umlant 를 말한다. 아기>애기 먹이다>맥이다 고기>괴기 구경>귀경 등 通俗的인 例들이 흔히 주어지는 이 現象은 印歐語의 그것과는 달리 音強勢와는 직접적인 關係를 가지지 않는다.

後部母音이 前部母音化한다는 이 統合的 音韻現象은 곧 그 言語나 方言의 母音體系 안에 前部 및 後部の 두 系列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言語나 方言이 올라우트를 실현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그 言語나 方言이 前部母音系列과 後部母音系列을 그 下位體系로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길 수 밖에 없다. 올라우트를 실현시키고 있는 韓國語의 모든 方言들도 例外者가 될 수는 없다. 우리에게는 상식화될 일이 지마는 올라우트가 다음과 같이 나타남은 일반적이다.

Front-Series		(Fronting)		Nonfront Series
i	←	iY	←	i
e	←	ɔY	←	ɔ
ɛ	←	aY	←	a
ü	←	uY	←	u
ö	←	oY	←	o

⁴ 李崇寧(1954), 國語音韻論研究 第一輯 「·」音攷

金完鎮(1971), 國語音韻體系의 研究.

李秉根(1970a), 19世紀 後期 國語의 母音體系, 學術院論文集 9.

李秉根(1971), 雲峰地域語의 올라우트現象, 金亨奎博士頌壽紀念論叢

즉 여기에서 보아 동화가 될 수 있는 i ɔ a u o 는 非前部母音들이 되고 또 동화된 i e ε ü ö 는 그에 對當하는 前部母音들이 될 것이다. 母音體系上에서 i 와 ü, e 와 ö, i 와 u, ɔ 와 o 는 각각 圓脣性에 의한 對立의 짝임을 가정하게 되어, 그 짝들은 非示差的인 變異音域內에서 오직 圓脣性的 차이만이 있게 된다. ü 는 i 에 圓脣性を 보태든가 u 에 前部化成分을 보탬으로써 동일하게 얻어지며, ö 는 e 에 圓脣性を 보태든가 o 에 前部化成分을 보탬으로써 얻어진다. 즉 이는 相異한 方法에 의하여 동일한 音聲의 價値를 인정하는 音聲의 代償(phonetic compensation)의 훌륭한 예가 되는 것이다. 이 代償은 音韻體系가 包含하고 있는 音韻論的成分들의 內在的인 意味를 力說하여 주는 듯이 보인다.

지금까지 간략히 기술한 움라우트라고 하는 單純化의 音韻現象에서 보아 韓國語의 母音體系가 前部母音系列과 後部母音系列과의 下位體系로 양분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後部母音系列의 [-high -low]의 degree 인 o 는 동일한 degree 의 ɔ 에 對當하는 圓脣의 對立의 짝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움라우트에 대한 상세한 토의는 拙稿(1971)을 참조).

덧붙여 말할 사실은 圓脣의 對立이 後部母音系列에서보다 前部母音系列에서는 극히 疎遠하다는 점이다.⁵ 圓脣의 對立의 疎密度가 方言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도 前部母音이 더욱 심한 듯하다. 共時的으로는 i~ü 및 e~ö 의 自由變異를 생각하게 되고, 通時的으로는 ü 와 ö 의 單母音形成이 그리 긴 역사를 가지지 못하여, 後部母音들에 비하여 연약한 圓脣의 單母音들임을 이르게 된다. 동일한 示差的 對立의 共時的 相連性이 通時的으로 입증이 된다는 사실은 言語의 體系의인 記述에서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2.2 위의 움라우트現象에서 가정할 수 있었던 ɔ 와 o 와의 圓脣의 對立關係를 지지하여 주는 統合의 音韻現象이 발견된다. 이는 특히 中部方言에서 강하게 실현되는데, 더욱이 京畿地域語의 通俗的인 方言形 보리>버리 본>번 보늬>버네 본바닥<번바닥 본적>번적 보리수>버루수 불거리>벌거리 불파귀>벌파구니 포대기>퍼대기 모루>머루(鎚) 등 가장 많은 예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테면 脣子音 아래에서 圓脣母音 o 를 그에 대립되는 非圓脣母音 ɔ 로 대체시켜 버리는 現象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音韻現象을 筆者는 非圓脣母音化라고 부르고 있다.⁶ 標準語에서 이미 굳어버린 보선>버선 붓나모>벗나무 본도기>번데기 몬져>먼저 몬지>먼지 등은 이 非圓脣母音化의 훌륭한 先驅者의 예들이 된다. 이 歷史的 先驅者들도 南部方言에서는 進前되고 있지 못해 흔히 自由變異를 일으키기도 한다. 여하튼 方言에 따라 또 擴大化에 있어서 많은 疎外者들이 있겠으나, 이 統合의 音韻現象은 母音體系의 어느 부분 즉 o 와 ɔ 와의 對立關係에 심각한 의미를 제기하여 주는 現象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以前의 拙稿로 넘기고 여기서는 그 要點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⁵ 註 1의 李秉根(1969a) 참조.

⁶ 李秉根(1970b), 京畿地域語의 母音體系와 非圓脣母音化, 東亞文化 9

우리는 脣子音 아래에서 非圓脣母音 *i*가 圓脣母音 *u*로 대치된 「圓脣母音化」라는 유명한 史的 音韻現象을 잘 알고 있다. 이는 脣子音이 가지는 圓脣的 資質로 인하여 非圓脣母音 *i*가 그에 對當하는 圓脣母音 *u*로 동화되는 現象이므로, *i*와 *u*가 圓脣的 對立의 짝임을 逆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와 *u*가 圓脣性에 의하여 兩面的 相關對立을 이루는 짝임을 反證하여 준다는 이 圓脣母音化로부터, *u*는 圓脣的 成分(W)과 高舌位置의 成分(I)과의 同時的 實現音韻으로 간주될 수 있게 된다. 이 사실은 生成音韻論에서 이르는 原形的 設定에서 *u*를 *wi*로 보려는 태도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圓脣性의 첨가인 圓脣母音化에 대하여, 非圓脣母音化가 圓脣性의 탈락이라는 점에서 보아 두 現象이 정반대의 방향을 취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Labial+Nonround → Labial+Round (Vowel-rounding)

Labial+Round → Labial+Nonround (Vowel-nonrounding)

즉 脣子音과 圓脣母音과의 연결은 同質的인 示差的 資質의 연결을 뜻하게 됨으로, 圓脣母音化는 同化作用에 속하고 非圓脣母音化는 異化作用에 속한다. 脣子音 아래에서의 *o*는 圓脣性이란 示差的 資質의 二重的 機能을 기피하게 되어 결국 圓脣性이 탈락되어 *o*의 非圓脣的 對立의 짝인 *ɔ*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o*라는 音韻은 圓脣的 成分(W)과 中舌位置(ɢ)와의 同時的 實現音韻이 되는 것이라고 結論짓게 된다. 이러한 소박한 結論은 現代韓國方言의 共時的인 記述에 한정되는 것이지 通時的인 面에서의 母音體系에 대한 記述과는 직접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方言 사이에 존재하는 母音體系의 方言差 자체를 표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方言들의 共通的인 內在의 特性을 밝히려는 것임을 아울러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共通的인 內在의 特性 위에서 構造的 價値가 큰 方言差를 밝혀 설명함으로써 그 方言記述이 韓國語史의 그것에 적절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상식적인 사실을 筆者는 또다시 강조하고 싶다.

이상에서 간략히 언급한 圓脣母音化와 非圓脣母音化라고 하는 두 相反의인 統合的 音韻現象에서 보아 *i*와 *u*와 *ɔ*가 각각 圓脣性에 의한 對立의 짝이 되며 *u*와 *ɔ*는 *i*와 *ɔ*에 각각 圓脣性이 보태진 音韻 이룰때면 圓脣性의 添加規則에 의하여 나타나는 音韻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結論은 方法論과 具體的인 資料의 제시에 있어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S. E. Martin 이 주요한 音韻論的 成分으로 분석한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成分들의 表記가 곧 原形的 表記가 될 수는 없는 일인데 다만 示差的 資質上에서는 成分과 原形이 共通的일 수 있지 아니할까 한다. 그것은 音韻體系를 형성함에 기능하는 가장 기본적인 對立關係의 要素들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成分들의 기호를 마치 形態音韻的 表記와 같이 音韻的 表記와 다른 大文字를 흔히 사용하게 된다. 만일 成分의 表記를 *wi wo*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原形的 表記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音聲의 表記도 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表記와 아울러 문제되는

또하나의 사실은 成分들의 音韻化인 것이다. 示差의 資質에 의한 對立關係로부터 밝혀 들어난 成分들의 音韻化하는 단위는 單語를 중심으로 한다. 이 경우에 單語는 최소의 自由形式일 수도 있고 繼起的 要素들 (les éléments successives)을 포함시켜 모든 拘束形式들까지도 포함하는 확대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⁷ 적어도 音韻化에 있어서는 「평」이나 「평이」등 모두 單語로 간주하여도 무방하지 아니할까 한다. 이러한 單語 위에서 이루어지는 音韻化는 示差의 資質들의 셀의 外顯이 되므로, 그 外顯된 사항이 成分들의 共存의 連結體인가 아니면 그것들의 繼起的 連結體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母音에 있어서는 單母音과 二重母音에 관여하게 된다. 앞에서 밝힌 後部圓脣母音들의 成分 WI와 W는 어떻게 音韻化하는가.

WI는 共存의 實現으로 u로 나타나며 繼續的 實現으로는 case vides 를 이룬다. 이에 대하여 W는 共存의 實現으로는 o가 되며 繼起的 實現으로는 wo가 된다. 따라서 WI와 W는 音韻化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 共時的 차이는 通時的으로는 第一音節에 있어서 조차 例外를 인정치 않는 圓脣母音化와 새로운 母音體系의 再構造化에 따른 非圓脣母音化라는 두 音韻現象에서 나타난다.

실지로 擴大化에 있어서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例外없이 실현된 圓脣母音化는 바로 wi와 같은 二重母音을 인정치 않는 體系上的 case vides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또 中母音에서 실현된 非圓脣母音化는 그 實現例들이 많지 못하며 더욱이 後續子音이 non-grave 일 경우에 한정됨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擴大化上的 完備함과 制約規定의 필요함은 또하나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것은 共時的 記述과 通時的 記述과의 차이 또는 두 記述들의 합리적인 연결에 놓여지게 된다.

圓脣母音化와 非圓脣母音化는 示差의 資質에 의한 單純化의 관계에서는 圓脣性이라는 點에서 어떤 일관성을 보이지마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擴大化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적어도 i와 u, ɔ와 o 사이에 존재하는 圓脣的 對立關係가 共時的으로는 동일하지만 通時的으로는 어느 단계에서인가 동일하지 않았으리라고 가정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우리는 i와 u, ɔ와 o 사이의 圓脣的 關係로부터 現代韓國語의 母音體系와는 다른 以前의 母音體系가 있었다고 가정하고 그 以前의 母音體系에 있어서는 i와 u와의 관계가 ɔ와 o와의 관계보다 더욱 밀접하였으리라고 가정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은 現代韓國語에 와서 이미 소멸된 圓脣母音「ㅜ」와 같은 母音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 단순하게 증명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母音體系의 歷史가운데, 以前의 어떤 韓國語母音體系가 現代의 母音體系와는 달리 ㅡ와 ㅓ가 같은 degree에서 밀접히 연결되고 ㅜ와 ㅓ는

⁷ A. Martinet (1966), Le Mot (*Problèmes du Langage*에 실렸음)

相違한 degree에서 疎遠하게 관계되었었다는 사실은 무척 고무적이기도 한 것이다.⁸ 이에 따른다면 單純化의 音韻現象이 歷史的인 이유로 인하여 擴大化에 있어서 相違를 보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生成音韻論에서 어떻게 realistic하게 설명되어야 하는지?

本攷에서 지금까지 기술한 사실가운데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理論的方法論을 배경으로 하더라도, 統合的 現象으로부터 그 內在的인 系合的 關係(paradigmatic relation)를 밝혀 音韻論的인 成分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얻을 수 있던 결론은 現代韓國方言의 母音體系가 後部母音系列에서 圓脣과 非圓脣의 두 系列을 포함하고 있고 圓脣母音들이 非圓脣母音에 圓脣性을 보임으로서 生成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u는 W와 I와의 成分으로 분석되며 o는 W와 ɤ와의 成分으로부터 얻어지게 된다.

2.3 이러한 共時的 結果가 通時的 事實과 함께 지지를 받을 듯한 形態音韻的 類形이 발견된다. 江陵·溟州를 중심으로 하는 東海岸地域語의 方言資料가 있다. 우선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예들을 보자.

方言形活用 標準基本形		I		II
(A)	바꾸다	바꾸고	바꾸지	바꼬라
	맞추다	맞추고	맞추지	맞초라
	말리다	말류고	말류지	말료라
(B)	배우다	배우고	배우지	배워라
	싸우다	싸우고	싸우지	싸워라
(C)	덥 : 다	덥 : 고	덥 : 지	더워
	깎 : 다	깎 : 고	깎 : 지	기워

여기서 (A) (B) (C)는 각각 通時的으로나 形態音韻的으로나 달리 해석될 것이다. (A)의 예들은 中世韓國語에서 語幹末音이 ㅌ가 아닌 ㄴ인 것들이고 (B)의 예들은 語幹末音節이 -호-인 것들이며 (C)의 예들은 上架的(suprasegmental) 特徵들을 제외하면 동일한 것들이다. (C)의 예들은 形態音韻이 (A) (B)와 전혀 다른 것들이므로 本攷에서 論外의 것이 된다. (A)와 (B)는 音韻的 次元에서 볼 때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의 연결에서 (A)는 -o-로 (B)는 -wo-로 각각 나타난다.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u를

⁸ 이러한 사실들은 金完鎭교수와 李基文교수의 최근의 音韻史研究에서 보여지고 있다. 時代的인 區分과 母音圖의 作成에 있어서 약간의 不一致가 있을지라도, 中世 이전의 어떤 韓國語의 단계에서 ㅌ와 ㄴ은 ㄱ과 ㄴ보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확인하여 준다(다음 母音圖를 참조) 물론 文字와 音韻의 價値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우	오	이	우	오
	으	으	어	으	으
	어	아		아	

金完鎭(1963), 國語母音體系의 新考察, 震檀學報 23

李基文(1969), 中世國語音韻論의 諸問題, 震檀學報 32

wi와 같은 成分의 동시적인 實現音으로 보고 o를 wo와 같은 成分들의 동시적인 實現音으로 보면 특수한 活用形式인 듯한 (A)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 즉 「바꾸어」는 pak'uo→pak'wio로 되어 -wio-와 같은 連續體를 얻는데, 다시 o앞에서 i가 탈락하는, 現代韓國語의 가장 일반적인 規則(ex. 쓰어→써, 끄어→꺼, 바쁘어>바빠)에 따라 -wio-는 -wo-가 된다. 이 과정은 (B)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A)의 예들은 이 -wo-를 동시적으로 또 共存의으로 實現시킴으로써 wo>/o/가 되고 (B)의 예들은 繼起的으로 實現시킴으로서 二重母音 /wo/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설명과 관련이 될만한 語彙的 方言形이 발견된다. 평>뽕 권련>곤련 온상>원상 등. 즉 「평」의 繼起的인 wo가 共存의인 o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튀-+-어>퇴: 뛰-+-어>퍼: 등도 위의 사실에 平行되는 예들이라고 여겨진다. 「외」(/ø/)와 「웨」(/we/)와의 自由變異는 WɘY를 공통적인 成分으로 하는 훌륭한 예가 된다.

3.0 지금까지 筆者는 몇가지의 統合的 音韻現象 즉 움라우트現象 圓脣母音化現象과 非圓脣母音化現象 끝으로 特殊한 形態音韻의 類形 등을 통하여 現代韓國方言의 母音體系를 특히 圓脣의 對立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共時的으로 기술된 사실로부터 通時的인 문제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本攷는 方言의 共時論的 記述에 일차적인 力點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兩바 生成音韻論의 基本母音 및 原形의 설정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는 않는다.

本攷를 끝내면서 한가지 덧붙여 말할 것은 本攷의 結論으로 얻은 圓脣的 對立의 형성에 관련되는 문제이다. 즉 母音體系의 通時的 力動關係의 해명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미 앞에서 가정된 中世 이전의 母音體系로부터 現代의 그것으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보아, i와 u, ɔ와 o가 각각 對立의 짝이 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本攷에서 다룬 統合的 音韻現象들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對立의 平行을 이룬 時期의 추정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으나, 늦어도 「·」의 音韻消失이 일어나면서 그 音韻體系가 완전히 새로운 再構造化를 이룬 이후가 될 듯하다. 대체로 18세기 말엽으로부터 19세기 초엽에 걸치는 무렵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 우리는 母音體系가 그 體系에 包有되는 母音들 또는 音韻論的 對立關係로부터 설명되어야 하지 아니할까 생각하게 된다. 현재의 生成音韻論에서 音韻論的 單位로서의 音韻을 무시하려 하는데, 어떤 通時論的 辭項과 共時論的 辭項과의 설명에서는 音韻이란 개념이 有用하지 아니할까 여겨진다. 構造音韻論과 生成音韻論과의 어떤 辯證法的 發展을 우리는 소박하게 기대하고 싶다.